

가톨릭의료기관의 협동운영과 그 필요성

조 규 상

〈가톨릭의대교수〉

1. 가톨릭의료기관이 걸어온 길

현재 한국에는 가톨릭교회와 수도회에 의하여 27개의 병원과 25개의 의원이 운영되고 있다.

이들 병원이 가지고 있는 병상수는 약 6,000이며 1만명에 가까운 직원(의사 1,200, 간호원 2,300, 기타 직원 5,500)이 일하고 있다.

이 의료기관들을 합한 규모는 우리나라 의료기관의 1할을 넘는 것으로서 국민의료보전에 공헌하고 있는 바 크다.

시기적으로 볼 때, 이들 의료기관의 설립은 1950년 한국동란을 기점으로 하여 1970 년대에 대부분이 이루어진 것으로서 전쟁으로 시달리던 이재민의 구호와 절대적으로 모자랐던 우리나라 의료요구에 의하여 교회에서는 전통인 그리스도의 사랑의 정신과 실천을 본받아 이루어진 것이다.

모든 사업이 그러하지만 의료사업도 운영하여 감에 따라 시설과 규모는 확대되기 마련이다. 처음에는 어려운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시료소로서 시작한 것이 현대의학의 발전과 새로운 기술의 도입에 따라 가톨릭의료기관도 예외없이 그 규모가 확대되어 의원에서 병원으로 병원에서 종합병원으로 발전하였다.

따라서 고가한 의료시설장비가 소요되게 되었고 전문기술을 가진 의료진이 필요하게 됨에 따라 병원의 운영도 자그마한 살림에서 벗어나 기업경영의 전문지식 없이는 경영이 어려워지게 되었다.

이 기간(1950~1980)중 병원운영상 가장 어려웠던 편은 의사인력의 부족이었다. 가톨릭의대의 설립은 이 인력공급에 많은 공헌을 하였으며 각 병원의 요청에 따라 부속 또는 자매병원의 결

연과 협동을 위하여 가톨릭 중앙의료원이 설립되었다.

그러나 병원의 설립과 운영은 교회와 수도회에 따라 각각 달랐으므로 지원은 의사인력관리의 통합과 협동에 쏠렸고 따라서 이에 파생된 어려움도 있었다.

가톨릭의료기관들은 각기 설립목적과 사명은 달랐으나 교회공동체로서 서로 협동하기 위한 노력으로 1967년 가톨릭병원협회를 창립하였다. 본 협회는 가톨릭중앙의료원이 주축이 되어 이사회와 사무국을 두어 매년잡지를 발행하고 세미나를 열어 공통된 문제를 다루어 왔다.

이 중에서도 행복한 가정운동을 위한 자연가족 계획클리닉의 운영과 천주교 200주년 기념사업으로서의 맹인개안시술은 협회공동사업으로서 특기할 일이며 이 외에 제 7차 아세아가톨릭의학회 개최와 의학윤리 발간에도 크게 기여하였다.

그러나 가톨릭 의료기관의 구체적인 협동운영은 각 운영기관마다 가지고 있는 지역적 특수성과 협동운영에 필요한 전문연구기구의 결여등으로 오늘까지 실현을 보지 못하였다.

2. 의료의 변천과 가톨릭의료기관

교회에 있어 의료사업은 전통적으로 그리스도의 신앙과 형제적 사랑으로서 결속된 공동체로서 이어왔다.

그러나 근세기에 들어와 급속한 과학과 기술의 발달, 그리고 이에 따른 사회의 변화는 의료에 있어서도 큰 변혁을 가져왔다.

의료는 학문과 기술 그리고 윤리가 일치됨으로써 참다운 의료가 이루어져야 한다.

과거의 의료는 개인이 마련한 시설과 기술로서 비록 의료의 수준은 낮았지만 의사와 환자는 긴밀한 우애와 존경의 관계가 유지되어 왔다. 자본도 소규모였고 이 속에서 자선도 이루어졌다.

그러나 현대의학의 발전에 따라 의료는 그 전문분야에 따라 분화하기 시작하였고 시료적인 의료기관으로부터 대형의 기업으로 발전하였다. 따라서 여기에서 만이 모든 질병의 완전한 진단과 치료가 가능하게 되었다. 병원만능의 시대가 온 것이다.

그러나 병원을 운영하기 위하여서는 필연적으로 막대한 재원이 필요하였고 고가의 의료비를 환자로부터 받지 않고서는 병원의 경영은 어렵게 되었다. 따라서 병원은 의료비를 지불할 수 있는 환자만 진료할 수 밖에 없게 되었다. 병원의 문턱이 높아진 것이다. 이에 따라 의료의 본질에 큰 차질을 가져오게 된 것이다. 교회병원 역시 이 범주에서 벗어나지 못하였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창설된 것이 서구의 사회보장제도이다. 언제, 닥칠지 모르는 질병으로부터의 위협에 공동대처하기 위한 것이 이 제도이다. 이에 따라 의료보험이 생겼고 여기 가입하면 언제나 병들었을 때 진료를 받을 수 있는 보장이 이루어졌다.

의료보험제도의 실시는 막대한 의료의 수요를 가져왔다. 병원은 환자로 넘쳐 흐르게 되었다. 이에 따라 병원은 질보다도 양적으로 환자를 다루지 않으면 안되게 된 것이다.

병원은 규모에 있어 더욱 확장하지 않으면 안되게 되었는데 국가는 의료의 수요증대에 따른 의료비의 과다지출을 막기 위하여 의료수가를 억제함으로써 병원운영과 큰 마찰을 빚어내게 되었다.

의사와 환자와의 관계 또한 의료기술과 제도의 발전에 따라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 사회제도의 발전에 따라 이제 건강은 인간의 기본권으로서 의료받을 권리가 있다고 생각하게 되었고 의사의 일방적인 진료에 대하여도 비판과 소송을 야기하게 되었다.

의사와 환자와의 관계를 소홀하게 만든 또하나의 이유는 병원에 있어서의 각종 기계로 인한 진료와 고도로 분화된 병원의 운영방식도 들을 수 있다. 이리하여 의사와 환자와의 관계는 갈수록

불편한 관계가 되어 가고 있다.

오늘날 보건의 안고 있는 3 가지 문제로 3P를 들고 있다. 인구문제 (population), 환경오염 (pollation), 빈곤 (poverty)이다. 이것은 서로 상호관계를 가지고 작용하고 있다. 그러나 고도로 발달된 오늘날의 의학과 기술속에서도 아직도 기본적으로 해결 못하고 있는 것이 의료전달 체계이다. 아직도 많은 나라에 있어 1차진료(primary care)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그리하여 이 기본적인 문제를 WHO에서는 2000년까지 해결하고자 목표를 세우고 노력하고 있다.

이것은 종래 의료가 병원중심으로 이루어져 왔다는데 대한 깊은 반성으로서 교회병원 역시 이 책임에서 벗어나지 못하며 이러한 시대적 요구에 따라 1960년대 후반부터 WCC, misereor 등 의원기관은 도시병원에 대한 지원을 정책적으로 중단하고 지역사회의료전달로 바꾸고 있다.

그러나 의료기관 설립이후 병원으로 확장하지 않고 지역사회의료기관으로서 설립목적대로 초치 일관 같은 규모로 운영하고 있는 곳도 있다.

지역사회의료(1차진료)의 중요성에 대하여는 교황청 폴·우승 위원회에서 발표한 「인간의 총체적 개발을 위한 보건사업」과 「일차보건 사업의 새로운 방향설정지침」에 명백히 제시되고 있다.

3. 병원경영의 특수성

현대는 고도의 분업(分業)화 시대이다. 의료 역시 이 범주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각기 세분된 진단과 치료분야속에서 더욱더 세분하여 각자는 극히 작은 한 부분만을 맡고 있다. 한가지를 빠짐없이 완벽하게 알아야 하는 것이 분업화된 오늘날의 요구이다.

이같이 극히 작은 분야나 깊은 전문성을 가진 부서에서 일하는 경우 그 기구는 고도의 조직과 협동이 필요하게 된다.

현대경영이란 이러한 분업하에서 직무나 권한과 책임을 훌륭한 인간관계속에서 합리적 기능으로 조정하여 그 조직이 최종목표로 달성해 나가도록 하는 것이다.

병원경영이란 어느 산업보다도 인적 물적 요소에 있어 다양성을 지니고 있다. 일반생산공장 같으면 일정한 물질을 정해진 시설과 자원 그리고 인력을 가지고 어느 기간동안에 계획성있게 생산하면 된다.

그러나 의료는 인간을 다루는 분야이기 때문에 그 요구나 목표에 있어 한계가 없다. 질병의 발생 역시 많은 인자에 의하여 수시로 변동하며 동일 질환이라도 환자에 따라 각종 다양함으로 동일하게 대처할 수가 없다.

이렇듯이 병원의 특성은 각종 다양하며 더우기 인간의 생명을 다루는 분야이기 때문에 재산이나 경제적 원칙만 가지고는 다룰 수 없다. 즉 병원은 재산이 없는 일도 하여야 할 때가 있다. 여기 이윤을 추구하는 기업과 사회봉사하는 공익사업간에 차이가 있는 것이다.

병원은 또한 의료사업속에서 발전하는 의학의 연구개발과 교육, 훈련의 업무와 지역사회에 대한 보건교육의 임무까지 지니고 있다.

이렇듯이 병원이 가진 특수성을 감안하면서 또한 그러기 때문에 보다 훌륭하게 운영되기 위하여 병원은 항상 그 많은 조직과 기능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운영하여야 하는가를 연구하여야 한다.

오늘날 병원경영에 있어 또하나의 어려움은 아니 가장 큰 어려움이라고 할지 모르는 것은 재정상의 문제이다. 일진월보하는 과학발전속에서 의학 또한 매일같이 새로운 분야의 개발과 기술이 도입되어 끊임없이 새로운 투자를 요구하고 있다. 오늘날 근대병원시설에 있어서는 병상당 10 만불(약 8,500 만원)이 소요되는데 그 3분의 1은 의료기자재가 차지하며 이것은 3년에 한번은 대체 나가야 한다고 보고 있다. 참으로 이윤이 없는 엄청난 투자인 것이다. 그러면서도 환자들은 보다 편리하고 안락한 의료를 요구하고 있다.

이렇듯이 사회가 변천하고 의료제도의 변혁이 일어나 병원의 관리운영에 있어 현대화와 개혁이 요구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병원들은 전통적이며 고식적인 재래운영방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오늘날 우리나라의료가 당면하고 있는 과제에 대처하기 위하여 병원경영의 연구와 그 합리화는 어느때 보다도 시급하고 중요하다. 특히 의료가

정통적 자선과 사랑의 사업으로 부터 국가사회의 공익사업으로 전환되어 나가는 시점에 있어 교회 병원의 사명은 무엇이며 어떻게 운영되어 나가야 할 것인가는 깊이 생각하여야 한다.

4. 가톨릭병원의 협동방향

최근 20년간에 있어 병원재정의 핏박으로 국가나 사회에서 지원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미 각국에서는 많은 병원들이 폐통합되었고 이러한 현상들은 우리나라에서도 일어나기 시작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 대처하여 최근 미국에서는 병원간이 서로 기능을 통합하는 복합병원체계(multi-hospital system)가 성장되 나가고 있다. 본인은 이 분야에 대하여 지식이 없음으로 이에 대한 설명을 못하겠다.

그러나 여하간 가톨릭병원은 교회공동체속에서 서로 협동하여야 하며 그 기술을 공동으로 개발하여야 한다. 병원경영에 있어 기본인 의료시설, 환자관리, 행정조직과 관리, 의료비와 재정관리, 의료수준의 평가등은 항상 공동으로 연구를 게을리하지 말아야 한다.

여기 교회병원이 협동하는데 있어 기본적으로 생각되는 것을 열거하면 다음과 같다.

1. 가톨릭병원은 그 고유의 사명을 위하여 공동노력을 하여야 한다.

교회는 전통적으로 의료를 통하여 사랑을 실천하여 왔다.

이것은 종교, 인종, 신분의 귀천을 막론한 것이었다. 교회 의료기관은 그 규모나 특수성의 관계없이 이 정신은 공통된 것이어야 한다. 의료의 기업화에 따라 의료제도의 사회화에 따라 이 정산과 사명이 변화될 수는 없다.

특히 교회병원들은 교회공동체속에서 같은 지향을 가지고 형제자매기관들이 훌륭하게 운영되어 나갈 수 있도록 서로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그러므로서 가톨릭 의료기관들은 국가사회속에서 지도적이며 모범적인 기관으로서 의료를 옳은 방향으로 이끌어 나갈 것이다.

교회의료기관은 그 규모와 비중에 따라 자연히 사명감과 책임감도 커지게 된다. 이러한 의미에

서 가톨릭병원협회는 이 공동노력을 위하여 중심체가 되어 지주적 역할을 하여야 한다.

2. 가톨릭병원협회는 협동을 위하여 전문기구의 설치를 권장한다.

이러기 위하여서 협회는 전문기구를 가지고 현재 한국에 있어 의료사업에 종사하고 있는 교회 각 기관의 실정을 면밀히 조사분석하여 그 나갈 길을 지도하고 새로이 설립하고자 하는 기관에 대하여서는 의료사업의 가능성, 교회성, 경영의 난의성 등의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또한 협회는 의료정책에 대한 대정부교섭, 병원 건설에 대한 자문, 의료장비와 의약품 및 자재의 공동구매와 보수도 연구하여 경영에 있어 경비절약과 효율성을 연구지도 하여야 한다.

협회의 운영비는 공동구매운영방식으로서도 지원될 수 있을 것이다.

3. 가톨릭병원들은 서로간의 기술교류를 통하여 발전하여야 한다.

협회의 또하나의 중요한 역할은 기술인력의 교류이다. 가톨릭중앙의료원에서는 설립 당시부터

의사들의 교류에 노력하여 왔고 의료기술요원의 훈련도 시도하였다. 앞으로 의료요원양성과 배출의 증대에 따라 장차 수급의 어려움은 감소될 것이나 발전하는 의료기술속에서 기술인력의 훈련과 교류는 더욱 중요하다. 이것은 기술부분 뿐만 아니라 병원행정 전반에 걸쳐 필요한 것이다.

오늘날 의료는 자유주의제도에서 형평주의제도로 변화해 나가고 있다. 머지않아 모든 국민이 어떤 형태이건간에 의료의 혜택을 받게 될 것이다. 따라서 앞으로 병원의 운영은 더욱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 예상된다.

이러한 속에서 과연 교회병원의 사명은 무엇이며 어떻게 운영되어야 할 것인가. 이것은 단독 의료기관의 문제가 아니라 교회병원공동체가 같이 연구해 나가야 할 과제이다.

더우기 오늘날 의학발전에 따른 많은 윤리의 문제들이 대두되고 있고 인간의 존엄성은 점점 상실되어 가고 있는 현실속에서 가톨릭병원이 하여야 할 또하나의 사명을 절감하는 것이다.